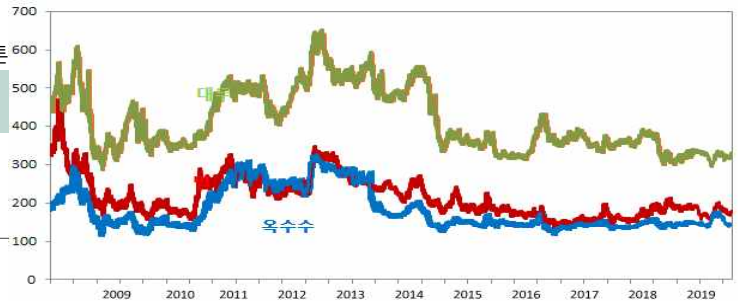


주요 곡물 선물가격,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제히 동반 하락
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19.09.17)	전일대비	전월평균 (19.08)	2018 평균
밀	177.93	▼0.9%	175	183
옥수수	144.88	▼1.6%	151	146
대두	328.39	▼0.7%	319	344

단위 : US\$/톤

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
(밀 : 12월, 옥수수 : 12월, 대두 : 11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9% 하락했다. 밀 선물가격은 지난 1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글로벌 공급과 옥수수 및 대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며 소폭 하락했다. 시카고 거래소 12월 연질 적색 겨울 밀 WZ9는 부셸 당 4~4.5센트 하락한 4.25~4.84달러로 마감했다. 밀은 일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낮은 원유 가격과 함께 후퇴함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의 하락을 따라갔다. 유가는 월요일 12% 이상 오른 후 화요일에 약 6% 하락했다. 밀은 경쟁 수출국들의 풍부한 밀 공급으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역풍에 직면했다. 미국 농무부는 월요일 주간 작황보고서를 통해 9월 15일 현재 겨울 밀 수확량의 8%가 시장 기대치에 맞춰 심어졌다고 밝혔다.

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6% 하락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유가가 폭락하고 미국 중서부 지역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. 시카고 거래소 12월 옥수수 CZ9는 6센트 내린 부셸 당 3.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.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월요일 곡물시장이 반등했다. 화요일 5% 이상 하락한 원유가격은 작물이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농업 선물과 연관돼 있다. 이달 말까지 미국 중서부 전역의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. 따뜻한 날씨가 농작물의 성숙도를 높이고 수확량 전망을 강화했다. 미 농무부는 월요일 현재 미국 옥수수 수확량의 55%를 양호한 상태로 평가해 전주와 변동이 없고 무역 기대치보다 1%p 높았다. 미 농무부는 작물의 4%가 수확되었다고 말했다.

대두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7% 하락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곡물이 반등하자 미국의 좋은 농작물 날씨와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화요일에 하락했다. 시카고 거래소 11월 대두 SX9는 부셸 당 8.75~8.93달러로 6~6.25센트 하락했다. 앞으로 2주 동안 미국 중서부의 많은 지역에서 정상 기온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일부 농작물이 수확량 감소의 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. 미국 농무부는 화요일 주간 보고서에서 9월 15일 현재 미국 산 대두 수확량의 54%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. 화요일에 미 농무부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중국에 26만 톤의 대두를 판매했다고 보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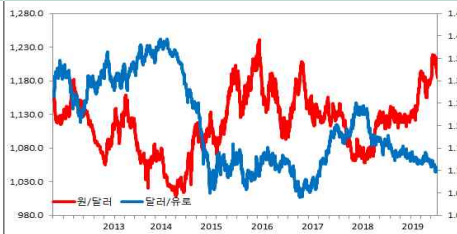
관련동향

- KCBT 선물이 상승한 가운데, HRW(걸프) 수출 프리미엄은 대부분 소폭 약세를 보였고, CME 선물의 강제 또한 대두 및 옥수수 베이스에 무게를 둬.
- 17일 국제유가는 피격당한 사우디 석유시설 조기 정상화 전망,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완화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 약세는 하락폭을 제한.
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구분	곡물수출가격 (FOB)		구분	국제유가	
	기준일	전일대비		기준일	전일대비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216 ▲0.9%	환율	원/달러	1,184.0 ▼0.6%
	옥수수	164 ▲1.2%		달러/유로	1,1005 ▼0.7%
	대두	341 -	국제유가	WTI	59.34 ▼5.7%
쌀	411 -	Dubai		67.53 ▲5.7%	

주 1) 밀(US SRW), 옥수수(US 3Y), 대두(US Gult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주 2) 기준일은 '19.09.16(수출가격), '19.09.17(환율), '19.09.17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